

지역건축탐방 16 - 북한(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North Korea

55년 동안 분단상태로 공존해 오면서 '우리건축'은 서로 다른 2개의 독특한 지역건축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한쪽은 '자본주의 현대건축',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 현대건축'이다. 두 지역 모두 현대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건축의 형식과 내용, 사고체계는 다르다. 건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것이라고 하지만 건축의 의미, 건축을 만들어 가는 사고체계, 건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두 지역이 전혀 다르다. 패션적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이고, 조금 무질서해 보이는 현대건축이 있는가 하면, 체제우월적이고, 웅장하고, 상징적이며, 도시기본구조에 맞춘 질서적이고,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도 보이는 현대건축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엄존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대립의 흔적은 건축에 깊이 박혀 그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건축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기세이다. 건축이 정치분야와 무관한 듯하지만 그래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건축이 체제를 선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의 정치성이다. 건축의 정치성이 건축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나 북한의 건축은 모두 '우리의 건축'이다.

지역건축 탐방이 지금까지는 같은 문화환경에서 표현되었던 지역건축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북한지역 건축은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서 존재해 왔던 우리민족의 지역건축에 대한 이야기다. 언제까지나 북한을 대립의 상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이질화되었지만 동질성 회복은 우리시대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건축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학계에서도 세계 각국의 건축을 탐색하면서 진작 다른 한쪽의 건축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건축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건축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지역건축탐방 「북한」을 기획하였다. 지역건축탐방 「북한」을 기획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건축가나 관련 인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도해 볼 빌미조차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평양도시설계사업소에서 구조방면의 설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참여하여 이를 통해 북한 건축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 기획이 비록 우리끼리의 담론에 그치고 말았지만 빠른 시일에 남북한 건축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디렉터 / 이왕기 (목원대 교수)〉

〈상편〉	북한 현대건축의 변천 / 이왕기	74
	북한의 도시계획과 그 전망 / 김현수	80
	북한건축 답사기 / 김봉건	84
	북한의 건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김병성	89
〈하편〉	북한의 주택실태와 주택정책 / 서우석	
	북한의 건설현황과 전망 / 장인숙	
	금강산에서의 건설 경험 / 김나영	
	좌담 북한 도시, 건축의 개방과 통일 준비	